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사목구용 툴키트

로마 가톨릭
애틀랜타 대교구

사목구/단체용 툴키트

신부, 성직자, 교구 직원 등 사목/사도적 지도자용*

공동합의성에 관한 시노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18 장 20 절)

... 시노드의 목적을 상기하면, 이번 자문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심고 예언과 전망을 이루어 내며 희망이 꽃피게 하고 신뢰를 불어넣으며 상처를 감싸 매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내며 희망의 서광을 깨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따듯하게 하며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빛나는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예비문서 제 32 호 (프란치스코, 젊은이에 관한 주교대의원회의 개막 연설 [2018 년 10 월 3 일])

* 워싱턴 대교구의 '교구 시노드 자료집'을 일부 각색함.

목차

들어가며.....	3
툴키트의 용도.....	4
전지구적 시노드의 목적.....	4
대교구 시노드 과정 - 개요.....	5
본 툴키트의 내용.....	8
시노드와 경청회 홍보용 자료.....	9
각 교회 소식지에 첨부할 전단.....	9
강론 도움말.....	10
보편 지향 기도.....	12
기도중심 경청회용 자료.....	14
1 안: 토요일 오전 기도중심 경청회.....	14
2 안: 3 주 저녁 기도중심 경청회.....	15
행사 기획하기.....	17
체크리스트.....	19
소규모 모임 관리 모범사례.....	22
경청회용 질문지.....	24
사목구/공동체 종합 보고서 작성용 지침.....	26
시노드를 위한 기도: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	Error! Bookmark not defined.

들어가며:

그레고리 하트메이어 대주교 (OFM Conv.)는 카톨릭 교회의 애틀란타 대교구 구성원들, 즉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들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지역 교회에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보다 신선한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국가적 성체 부흥 운동 (Eucharistic Revival)의 시작을 알리는 2022년 6월 17-18일의 성체대회 (Eucharistic Congress) 참가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노드 과정은 이런 우리 교회의 [성체 쇄신 운동 \(Eucharistic Renewal\)](#)에 상보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것. 그리고 주님과 서로를 경청하기 위해, 그리고 성령님의 행위들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예비할 것.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와 함께하고, 서로를 경청하고 서로로부터 배우고, 주님과 그 교회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노드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 자문 단계에서 우리는 보편 교회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차원의 식별 및 경청 단계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 교구 내 지역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각 교구내 지역 교회들이 성령님께 받는 모든 영감이 공유되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주교대의원회의 (주교시노드)의 2023년 회합의 결과물에 반영되기를 원하십니다.

본 사목구/단체용 툴킷의 목적은 신부, 사목구 성직자등 직원과 기타 사목적/사도적 지도자 및 공동체들이 시노드의 대교구 단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애틀란타 대교구의 지역 교회로서 우리가 특히 기도, 경청과 공유를 통해 시노달리타스, 즉 함께하는 여정의 중요한 측면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 대교구와 전세계 카톨릭 교회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시노드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라면 누구나 본 툴킷을 필요에 따라 수정/각색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목구/전도구 (내지는 카톨릭 학교나 대학교 사목부)와 관련된 공동체의 경우 담당 신부님/관리자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목구 보고서 작성팀에게 관련 피드백이 제출될 수 있도록). 특정 사목구/전도구 (내지는 카톨릭 학교나 대학교 사목부)와 관련 없는 공동체의 경우 본 툴킷에서 제공되는 보고서 제출 지침에 따라 피드백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은 대교구의 시노드 홈페이지 (archatrl.com/synod)에서 시노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툴킷의 용도

애틀랜타 대교구가 시노드에 참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고, 서로와 성령님을 경청하고, 성령님의 행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교구는 기도중심 경청회를 통한 전지구적 시노드 과정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도중심 경청회는 서로와 함께하며, 가족, 친구와 이웃들을 다시 믿음으로, 또는 적어도 대화로 불러낼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서로를 경청하고 우리 사목구들과 공동체들, 그리고 카톨릭 교회 전반에 관한 비전과 바라는 점들을 공유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본 툴킷을 이용해서, 사목구와 공동체 지도자들은:

- 1) 대교구 차원의 시노드 자문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하고;
- 2) 각 사목구에서 (또는 기타 환경에서) 시노드를 위한 기도중심 경청회를 개최하고;
- 3) 대교구 종합(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목구나 공동체 수준에서 개최되는 기도중심 경청회에는 횟수 제한이 없고, 본 툴킷에서 제시한 내용은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목구/공동체는 자문 과정이 종료되면 필히 경청회(들)의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 1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제출을 위한 지침은 본 툴킷나 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 (archatl.com/synod)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지구적 시노드의 목적

마침 우리가 성체 쇄신 기간에 있는 동안 시노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와, 경청과 공유를 위해 모임에 있어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모든 사람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지금, 시노드 과정은 각 사목구/공동체에게 함께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듯, 코로나 감염과 그로 인한 사망사례 등으로 큰 아픔을 겪은 사목구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첫 영성체, 혼인, 졸업식, 심하게는 장례식까지도 건너뛰어야 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동안 가장 크게 희생하고 가장 힘들어한 보건 의료진들과, 응급 의료요원들과, 그 가족들, 또 기타 빈곤하거나 질병과 감염에 노출된 여건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 사목구 회원들이거나, 이웃이거나 주변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 공동체 회원들의 놀랍도록 영웅적이고 넉넉한 면모를 보았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톨키트

우리 지역 교회에 있어 시노드는 둘도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즉 한 단계 물러서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사이의 연결들을 재점검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을 주일미사에 다시금 초청할 기회일 뿐 아니라, 사목구와 공동체 활동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내는 첫 걸음이 바로 경청입니다. 주님을 경청하고, 또 서로의 희로애락을 경청해야 합니다. 서로 경청하는 것이 대화, 우정,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기반입니다. 대교구 차원에서 시노드 과정은, 그 목표가 교리나 교회의 근본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역병 시대를 지나온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와 만나 함께 성령님을 경청하고, 그로써 새로운 환희와 자신감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에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대교구 시노드 과정 - 개요

애틀란타 대교구의 시노드 일정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2021년 10월 17일 - 11월 28일

왕 이신 그리스도 대성당 (Cathedral of Christ the King)에서 하트메이어 대주교 주관하에 시노드 개회미사를 드립니다. 미사 중 **강론**을 통해 시노드 과정의 개요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대교구 구성원들은 시노드 문서를 묵상하며 기도로서 시노드 과정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부님들과 각 지도자들은 각자 팀과 함께 기도중심 경청회 과정을 가장 실행할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고 식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중심 경청회 과정은 성체 쇠신 과정에 상보적이어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사목구들과 기타 공동체들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28일 - 2022년 3월 31일

각 사목구 등 공동체/모임은 성직자, 평신도, 사목구 근방의 수도자들과 기타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기도중심 경청회를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도중심 경청회의 순서가 제시되어있습니다. 각 회차에는 가능하면 영성체에 앞서 공동 기도시간과 개인 묵상 시간이 부여됩니다. 물론 제시된 일정과 순서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목구에서는 참가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확실히 구별하여 기도중심 경청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사목평의회, 사목모임별로 경청회를 갖고,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의 모임을 따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목구에는 구분 없이 사목구 공동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경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각 신부님과 지도자들은 질문의 개수를 줄이거나, 질문 내용을 수정하거나, 각 회차를 연장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지 사정에 따라 각 신부님과 지도자들은 기도중심 경청회중 미사를 드리거나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목구나 사목 환경 밖의 모임 역시 그 상황에 맞게 경청회 내용과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등 다양한 자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모든 모임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도중심 경청회를 개최하는 각 사목구, 카톨릭 학교, 대학교 사목부와 사목구 외 공동체는 대교구 시노드팀에게 기도중심 경청회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보고서 제출 지침은 본 툴킷과 www.archatl.com/synod 참조). 각 사목구/단체/공동체는 1부의 보고서만 제출해주시요.

각 신부님들은 그 사목구 직원과 평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대교구 지역 회합에 참가할 2인의 교구 시노드 대표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카톨릭 학교와 대학교 사목부 역시 위 회합에 참가할 1인 이상의 대표자를 지명하게 되고, 기타 모임과 개인들도 회합에 초청됩니다. 대표자와 지역 회합에 관해서는 따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협의단계 중에는 최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교구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청회 참여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분들이 이 온라인 설문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목구 및 기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공동체/모임들은 최대한 많은 분이 설문에 참여하고, 또 경청회에 참가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탄미사나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과같이 여러 사람이 참가하는 모임이 설문 참여를 독려할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시노드 과정의 핵심은 서로와 성령님에 대한 기도충만한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설문도 중요하지만, 대면 경험과 모임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2022 년 초부터 사목구/공동체 경청회에 추가로 일련의 대교구 지역 회합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지역 회합에는 사목구 시노드 대표자, 성직자 대표단, 그리고 남성 및 여성 카톨릭교 소공동체 대표자들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대교구 차원 회합은 각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 회합에 관해서는 따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2022 년 4 월 1 일 - 6 월 30 일 이후

모든 사목구/공동체 경청회와 지역회합이 마무리된 후에는, 최종 시노드 전 대교구 회합이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 미정). 4 월과 5 월에 걸쳐 하트메이어 대주교와 대교구 시노드 팀은 10 장의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6 월 30 일까지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미국 가톨릭 주교협회에 제출된 각 교구 단위 보고서를 종합해 국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보고서가 성좌 (주교대의원회의 사무국)에 제출됩니다. 다시 각 국가 종합 보고서를 기반으로 의안집 (*Instrumentum Laboris*) 초안이 준비됩니다. 이후 대륙별 주교회의가 소집되어 주교들이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고 대화하는데, 이 회의에서 의안집 초안이 사용됩니다. 대륙별 회의를 마친 후 대륙별 보고서가 로마의 주교대의원회의 사무국에 제출되고, 대륙별 보고서를 기반으로 2023 년에 있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총회에서 사용될 의안집 2 차 초안이 완성됩니다. 2023 부터 의안집 내용의 시행과 추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본 툴킷의 내용

본 툴킷에서는 각 사목구나 동동체의 경청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노드와 경청회 홍보용 자료
 - 각 교회 소식지에 첨부할 전단
 - 강론 도움말
 - 보편 지향 기도
- 경청회용 추가 자료
 - 두가지 기도중심 경청회 일정 (안) (필요에 따라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모임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청회 기획하기
 - 체크리스트
 - 소규모 모임 관리 모범사례
 - 시노드 토론용 질문
- 사목구/공동체 종합 보고서 작성용 지침

대교구에서 기도중심 경청회용 참가자용 안내서와 촉진자용 안내서를 각각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소그룹 토론 필기자용 자료가 준비되어있으니 필요로 따라 인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자료는 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경청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도자들은 참가예정자 모두에게 '참가자용 안내서'를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목구는 또한 대교구의 시노드 [홈페이지](#)를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목구 공동체는 제시된 문서들을 사전에 읽고 경청회 과정을 숙지하고, 시노드가 우리 지역 교회와 보편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노드와 경청회 홍보용 자료

각 교회 소식지에 첨부할 전단

시노드 경청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온 교회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 총회에 초대하셨습니다. 2023 년 정기 총회에 앞서 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에 우리 사목구는 날짜에 신부님 주관하에 기도중심 경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모두를 우리 기도중심 경청회에 초대합니다. 참가 의향자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목구 대표 이메일 주소.

우리 사목구의 기도중심 경청회에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archatl.com/synod/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온 교회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 총회에 초대하셨습니다. 2023 년 정기 총회에 앞서 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에 우리 사목구는 3 주에 걸쳐 날짜들 신부님 주관하에 기도중심 경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모두를 우리 기도중심 경청회에 초대합니다. 참가 의향자는 다음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목구 대표 이메일 주소.

우리 사목구의 기도중심 경청회에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archatl.com/synod/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노드 온라인 설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온 교회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 총회에 초대하셨습니다. 2023 년 정기 총회에 앞서 위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남녀노소, 카톨릭 신자와 비신자 모두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설문은 archatl.com/synod/ 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강론 도움말

현대적 비유 몇 가지

- 가족 모임: 시노드란 대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안듣는 사춘기 조카들, 늘 무언가 심기가 불편해보이는 삼촌, 알콜중독과 싸우고 있는 사촌, 최근 이혼한 이모님, 어릴때부터 나를 가장 이뻐해주던 삼촌, 그리고 부모님. 가족들끼리 식사 전에, 식사하는 중에,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대화를 합니다. 웃음과 환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언급하기 다소 곤란한 주제나 불편한 진실들이 있을수도. 그러나 어찌되었든, 좋든 싫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은 결국 가족입니다. 시노드 과정 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구성원들간의 관계는 가족보다도 친근하지요. 세례성사를 통한 우리의 유대는 피보다도 진하기 때문입니다.
- 장거리 자동차 여행: 또 시노드 과정은 기나긴 자동차 여행과 같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운전대를 잡고 지도를 보지요. 여행을 하면서 심도있고 유익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고, 오로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건성으로 하는 대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말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시간도 상당하겠지요.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야할 수도 있고,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휴게소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누군가가 화장실이 급해 줄음선풍기에 섰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행은 끝나고, 온 가족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란,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데려가는 차와도 같습니다. 네비게이션은 그리스도요, 엔진은 성령님이십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각자 역할이 있고 모든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십니다. 누가 운전대로 잡고 있고 누가 조수석에 앉아 지도를 보고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집, 즉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을 향한 여정에 있어 모두가 서로와 함께해줄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노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서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비유

- 탈출기: 다른 민족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민족으로 세우심을 받은 이야기는 하느님 백성의 서사에서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했으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마나에서 그 섭리를 맛보았고 또 하느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평하고 소곤거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각종 불평이 터져나오는 와중, 모세는 사람들을 모아 군중들의 하고자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기복을 거쳐 이들은 약속된 땅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시노드 과정도 비슷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새로운 모세를 인해 죄에서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또한 하느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했으며, 성체성사를 통해 그 섭리를 맛보았고 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은 오순절에 실현이 되었으며, 세례성사로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백성들이며, 시노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눈물이 닦여질 그 마지막 날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아직 듣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 두 제자는 행인에게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행인은 구원의 역사라는 맥락 속에서 방금의 사건이 가지는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는 행인의 말을 경청하며, 행인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권합니다. 행인이 빵을 떼어 두 제자에게 나누어주자, 두 제자는 행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속에서 그 마음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두 제자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립니다.

믿음의 제자들의 여정은 교회의 시노드 여정좌 다르지 않습니다. 낮은 행인을 맞이하여 최근의 소식을 나누고, 오늘날의 여러 위기들을 역사속 하느님의 여러 구원하시는 행동에 비추어 살핍니다. 이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와중에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님께서 이들을 움직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시노드의 목적은 서로 함께 걸으면서 서로에게 경청하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추어 시대의 표적 (징조)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 깊이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는 역사로써 열성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력의 절기 중 시노드와 관계 있는 주제 몇 가지

- 대림시기: 우리는 '열망과 기대와 참회 속에서 하느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시노드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듣기 위해 경청해야 하고, 성모님께서 천사에게 보이셨던 겸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성탄절: 성탄 이야기의 각 요소들은 시노드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관 주인의 매물참과, 천사들의 노래, 목자들의 경배, 동방 박사들의 선물과 헤롯의 적의는 모두 시노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반응과 태도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사색가들은 같은 말씀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말씀을 소외된 자들은 경배하고 그 앞에 선물을 마칠 수 있고, 제도적 권력은 말씀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어떻든, 그리스도는 항상 - 그 유아기에도 -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을 낮춰 종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시노드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늘 겸손하며 동료애로써 인류에게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 연중 시기: 연중시기의 핵심 주제 중에는 가르치심과, 기적을 행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숨겨진 삶이 있습니다. 영감으로서 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님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행하심들은 시노드적 토론의 기반이고, 빛이자 길잡이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백성이 그 일상 생활 속에서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심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보편 지향 기도

시노드 과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보편 지향 기도는 주교대의원회의가 도입한 것으로, 미사 중이나 다른 기도가 필요한 상황 (예: 성시간)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반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길을 가는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경청하는 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린 마음과 정신이 편견없이 다른 이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말하기의 은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노드 여정 중에 우리가, 자유와 진리와 사랑을 통합함으로써, 용기와 담대함으로써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성체를 거행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가올 수개월 동안 우리의 여정이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느님의 백성들과의 친교 속에서 성체성사의 거행에 그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시노드적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공동책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참된 대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내와 참음과 상호이해의 길을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과 민족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인간의 일치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의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된 각기 다른 교파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화가 이 여정 간에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하느님의 백성들의 권능의 행사와 참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시노드적 뿌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수준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우리의 식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노드적 여정에서 내려지는 모든 판단이, 성령님에 대한 공통된 순명에서 나오는 합의로써 식별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 함께하는 여정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노드 여정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정으로서,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 우리 마음 속의 회심과, 회개, 자비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노드를 통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전파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출처: 지역 교회에서 시노드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주교 대의원회의의 전례문 제언.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각 주교회회에 배포한 자료를 일부 각색했습니다.

기도중심 경청회용 자료

주: 아래 제시된 자료를 대면 모임을 상정하고 준비되었습니다. 각 공동체/단체는 비대면/대면+비대면 모임에 맞게 아래 내용을 수정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일정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함에 있어, 사목구와 기타 단체들은 기도와 개인 목상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한편, 발표를 위한 시간 역시 충분히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 토요일 오전 기도중심 경청회

토요일 오전에 걸쳐 진행되는 기도중심 경청회의 개요가 아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 (진행 스크립트, 개회 및 폐회 기도문과 행사 세부개요)은 촉진자용 안내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 3 시간 15 분

형식: 기도 및 소규모 토론

8:30 a.m. 환영 차담, 친교, 출석 확인 (생략 가능)

9:00 a.m. – 9:10 a.m. 환영인사, 개회사 및 개회기도

9:10 a.m. – 9:20 a.m. 시노드 과정 개요 및 참가자 규칙 설명

9:25 a.m. – 9:50 a.m. 기도와 개인 목상 시간

참가자들은 이 시간 동안 사목구에서 선별한 질문들을 목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단어나 영감이 있다면 이후 소규모 토론을 위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성체에 앞서 기도와 개인 목상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9:55 a.m. – 12:10 p.m. 소규모 토론 및 대화

(본 킷 말미에 첨부된 질문 목록 참조)

- 핵심 질문 [25-30 분]
- 보조 질문 [90 분]
- 기도 및 마무리 질문 [15-20 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다과 및 휴식 - 사목구/단체의 판단에 따라

12:10 p.m. - 12:15 p.m. 마무리 및 폐회 기도

2 안: 3 주 저녁 기도중심 경청회

삼주에 걸쳐 진행되는 기도중심 경청회의 개요가 아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 (진행 스크립트, 개회 및 폐회 기도문과 행사 세부개요)은 촉진자용 안내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모이는 경청회의 경우, 상호 신뢰를 쌓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가자들이 모든 모임에 참가하도록 유도해주시시오.*

소요시간: 회당 90 분 ~ 2 시간

형식: 기도 및 소규모 토론

1 주차:

6:00 p.m. *환영 차담, 친교, 출석 확인 (생략 가능)*

6:30 p.m. - 7:00 p.m. 환영인사, 개회사 및 개회기도 (*Adsumus Sancte Spiritus*); 시도그 과정 개요 및 참가자 규칙 설명

7:00 p.m. - 7:20 p.m.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

참가자들은 이 시간 동안 사목구에서 선별한 질문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단어나 영감이 있다면 이후 소규모 토론을 위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성체에 앞서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7:20 p.m. - 7:55 p.m. 소규모 토론 및 대화: **근본 질문** (*본 킷 말미에 첨부된 질문 목록 참조*)

7:55 p.m. - 8:00 p.m. 마무리 및 폐회 기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2 주차:

- 6:30 p.m. – 6:40 p.m. 환영인사와 기도 (*Adsumus*); 행사 개요
- 6:45 p.m. – 7:10 p.m.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
- 참가자들은 이 시간 동안 사목구에서 선별한 질문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단어나 영감이 있다면 이후 소규모 토론을 위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성체에 앞서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 7:15 p.m. – 7:55 p.m. 소규모 토론 및 대화 보조 질문: **경청 및 식별 / 공동책임 및 참여**
- 7:55 p.m. – 8:00 p.m. 마무리 및 폐회 기도

3 주차:

- 6:30 p.m. – 6:40 p.m. 환영인사와 기도 (*Adsumus*); 행사 개요
- 6:45 p.m. – 7:10 p.m.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
- 참가자들은 이 시간 동안 사목구에서 선별한 질문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단어나 영감이 있다면 이후 소규모 토론을 위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성체에 앞서 기도와 개인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 7:15 p.m. – 7:55 p.m. 소규모 토론 및 대화 - 보조 질문: **기도와 성체의 거행, 기도 및 마무리 질문**
- 7:55 p.m. – 8:00 p.m. 마무리 및 폐회 기도

행사 기획하기

촉진자, 테이블별 보조진행자, 필기자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시간

- 모임의 촉진자를 지명하고, 사전에 **촉진자용 안내서**를 배부해주세요.
- 테이블마다 참가자를 맞이하고 토론을 진행할 보조진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진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주세요.
- 각 테이블에서 토론 내용을 필기할 필기자는 당일 자원자를 받거나,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식별을 위한 질문지

- 사목구나 공동체는 사전에 각 참가자에게 **참가자용 안내서**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참가자는 안내서를 행사 참가 전에 읽어주십시오. 또한 참가자용 안내서 인쇄본을 경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참가자에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개인 묵상의 시간

- 각 사목구/단체는 성체에 앞서 기도과 개인 묵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경청회에서 다룬 주제와 질문들을 성령님의 빛 아래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때, 대교구 성찬례 쇄신을 위해 개발된 [The Holy Hour 기도문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있어 오늘의 미사에서 다뤄진 복음이나 성서의 다른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사목구는 경청회에 전구자/수호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청회가 진행될 동안 예배당에서 성체현시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 또한 각 사목구/단체는 개인 기도과 묵상의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본당 주변이나 회의실 밖 등). 참가자들은 항상 성령님의 빛 속에서 각 질문과 주제들을 식별해야 합니다.

공간

- 참가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충분한 테이블과 의자가 준비된 방
- 신부님/지도자와 촉진자/진행자용 마이크 1 개
- 다과가 준비된 다과 테이블
-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키트

각 테이블에:

- 질문지 인쇄본
- 필기구 (펜이나 연필)
- 소그룹 토론용 노트지 (필기용)

- 선택사항: 기도가 충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 참조를 위한 성경 (예: 시편의 적절한 구절 등)
- 선택사항: Holy Hour 기도문집 외 참가자용 안내서 등

체크리스트

기도중심 경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 ___ 공동체 내 협의를 위한 접근법을 아래 질문을 숙고하여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회 협의과정의 조정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몇 번의 모임이 개최될 예정인가? 모임에 초대될 참가자는 누구인가? 어떠한 모임 형식이 최적인가? 각 모임은 언제 개최되는가?
- ___ 이메일, 미사 후 공지사항, 게시판 등 교구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해 시노드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세요. 모든 교구 회원들이 교구 경청회에 참여해 형제자매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모임에 초대하세요. 참가가 불가능한 분은 온라인 설문에 응하시면 됩니다. 매주 미사에 참여 못하는 분들도 꼭 초대해주세요. 금번 시노드는 모드를 위한 만남과 복음화의 기회입니다.
- ___ 참여하실 분들은 <https://archatl.com/synod> 사이트를 방문해서 참가자용 안내서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___ 대화를 이끌 능숙한 촉진자를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은 수도자나 평신도 중 지도자를 지명하거나, 외부 촉진자를 초빙해 기도중심 경청회의 진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 ___ 참가자 중 보고서 작성자를 지명해주세요. 보고서 작성자는 소그룹 필기내용을 취합해서 하나의 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___ 전구자와 수호자 분들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에서 성체현시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봉사원 체크리스트:

- ___ 능숙한 촉진자
- ___ 차담과 참가자 맞이 담당 인원
- ___ 경청 및 발표 시간 중 계속 기도해주실 전구자
- ___ 필기자 및/또는 테이블별 보조진행자 (사전 지정했을 경우)
- ___ 보고서 작성자: 신부님/지도자는 보조원(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 필기내용을 교구 보고서로 정리해 <https://archatl.com/synod/> 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 말미의 지침 참조.

교보재 체크리스트:

- ___ 촉진자용 안내서
- ___ 이름표
- ___ 출석표
- ___ 식별을 위한 질문지 인쇄본 (참가자 당 1 개)
- ___ 다과 등
- ___ [Holy Hour 기도문집](#)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 소그룹 토론용 노트지
- 기도가 충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 필기구 (펜이나 연필)
- 소그룹 모임용 공간 준비

기도중심 경청회에서:

- 각 교구는 성체에 앞서 기도와 개인 묵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참가자들은 경청회에서 다룬 주제와 질문들을 성령님의 빛 아래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때, 대교구 성찬례 쇠신을 위해 개발된 The [Holy Hour 기도문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있어 오늘의 미사에서 다루진 복음이나 성서의 다른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구자/수호자 - 각 교구는 경청회에 전구자/수호자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경청회가 진행될 동안 예배당에서 성체현시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 각 사목구/단체는 또한 개인 묵상 시간을 부여해 각 참가자가 성령님의 빛에서 식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과 등을 제공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요.
- 참가자들에게 이름표를 나눠주어 (특히 처음 오신 분들과의) 대화와 친교를 장려해주세요.
- 참가자들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교구/공동체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의향을 조사하세요.
- 모든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경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가자들을 5 에서 6 인 정도의 작은 그룹으로 편성해주세요. 소그룹이 여러개라면, 그룹마다 필기자를 지정해주세요. 각 소그룹이 소그룹 내 토론을 마친 후 전체 참가자들과 생각을 공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경청회를 마친 후:

-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기도중심 경청회의 또 다른 결실은 신자들이 경청회 참가자들이 교구 생활에 보다 깊이 참여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를 고려함에 있을 것입니다. 각 교구는 - 필요하다면 1:1 로 - 각 참가자들을 지속 관리하여 교구/공동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키트

- 사목구/단체 피드백은 2022 년 3 월 31 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세요. 사목구/단체의 책임 하에 피드백을 취합해 사목구/단체를 대표해 온라인으로 피드백 양식을 제출할 분을 지정해야 합니다. 경청회를 2 회 이상, 진행하는 교구의 경우 각 경청회의 피드백을 단일 보고서로 취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침 참조).

소규모 모임 관리 모범사례

환대와 차담

시노드적 과정은 모든 참가자들을 환대할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 교구나 공동체의 경우, 이번 시노드 모임을 통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행사에 신자들을 맞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10 분”이 중요합니다. 주최측은 경청회에 참가하는 교구회원들과 다른 이들에게 최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겠습니다. 즉 행사명과 장소가 명확하게 표기된 안내 사인이 준비되어야 하겠고, 미소로 각 참가자를 맞이하며 이름표 등을 제공해야겠습니다.

“환대”라고 해서 꼭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하거나, 무리해서 호화로운 다과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구 등 공동체는 상황에 따라 방문자들에게 식사나 가벼운 간식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거의 1,500 년 전, 성 베네딕도께서는 ‘수도 규칙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그리스도처럼 맞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장차)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주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오 복음서 25 장 35 절).

테이블별 진행자

교구/공동체에서 대규모 기도중심 경청회를 기획하고 있을 경우, 테이블별로 진행자를 배정해 발표와 토론을 시간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블별 진행자들 각각에게 촉진자용 안내서와 참가자용 안내서를 한부씩 배부해주시고, 진행자들은 사전에 협의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열성적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진행자들이 기도중심 경청회의 방법론과 진행순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비대면 또는 대면)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들은 각자 맡은 테이블의 참가자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과 말씀과 다른 참가자들의 말을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진행자들은 참가자들을 관심과 존중으로써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흐름을 이어가되, 개별 참가자의 발언은 1 내지 2 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 발언 중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 발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발언자 호칭, 이름],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참가자분들께도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의 말을 끊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해 시간을 관리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기도가 충만한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 / 참가자 기본 원칙*

(아래 내용을 인쇄해 각 참가자 또는 소그룹에 제공해주세요.)

P – PRAY and PONDER 말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숙고합니다. 내가 말할때 주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계셔주시기를 청하고, 앞서 발표된 내용이 무엇인지와, 주께서 나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숙고합니다.

R – Take RESPONSIBILITY 책임있는 태도로 경청하고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은 오롯이 내 책임이고, 남의 탓을하는 시험에 빠져들지 맙시다. 마찬가지로 다른 참가자들의 생각과 감정들은 모두 각각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경청과 나눔을 위한 시간입니다.

A – ALLOW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참가합니다. 평소 대화를 함에 있어 외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분이라면, 이 자리에서는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시간을 더 할애하고, 평소 말씀이 잘 없으신 분들께 차례를 먼저 양보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노드 과정 중 우리는 모든 이들 - 특히 평소 소외된 이들 - 의 말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Y – YOU 나 자신의 생각, 감정, 사건과 편견들을 자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느끼는가?”

E – EMPATHY 공감하며 듣고, 입에서 나오는 단어 뿐 아니라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감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발언자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해, 스스로 발언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R – RESPECT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대로, 사랑으로써 서로를 존중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말할때와 경청할 때 모두 상냥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임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필기자의 역할

테이블마다 1 인이 필기자가 지정됩니다(참가자 중 자원자가 될 수도 있고, 교구/공동체에서 사전에 지정한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와 토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각 기도중심 경청회의 소그룹별 필기 내용을 취합해 교구/공동체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각 교구/공동체별 1 부가 준비되며, 기도/경청 경험을 요약하고 주요 순간을 공유하는 보고서입니다). 각 교구/공동체의 보고서는 다시 대교구 시노드팀에게 보내지며, 각 교구/공동체 보고서, 지역 모임 보고서와 온라인 설문지상 피드백을 취합해 대교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 보다 상세한 의사소통 지침은 *다문화적 의사소통: 상호 초대의 과정을* 참조: USCCB, *Building Intercultural Competence for Ministers: Bilingual edition* (Washington, D.C., 2014). 웹 주소: <https://www.usccb.org/committees/cultural-diversity-church/bicm-appendices>.

경청회용 질문지

애틀란타 대교구는 교구/공동체의 기도중심 경청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등 여건에 따라 각 교구와 공동체는 다음 질문지를 각색,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시노드 예비문서와 편람 상에 제시된 주제와 질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 제시된 추가 질문 중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교구/공동체 기도중심 경청회와 지역 모임에서 얻은 피드백을 보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본 질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개별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

- 이 "함께 걷기"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어떠한 경험들이 떠오르는가?
- 우리 교구/공동체 내에서 어떤 즐거운 경험이 있었는가? 함께 걷기, 또는 교구/공동체 생활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에 있어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이나 방해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의 개인적 성장을 장려하시는가?

주요 주제 및 보조질문

경청과 식별

경청은 첫 번째 순서이지만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을 요구한다. 시노드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전 공동체의 기도와 나눔을 통해 성령님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경청에 의존하는 과정입니다.

- 나는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있는 목소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 이탈자들 등)? 이 변방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어떻게 편견 없이 경청할 것인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킷

- 우리 교구/공동체는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경청과 나눔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와 주기적으로 교류하지 않는 이들의 경우 어떤가?
- 우리는 우리 교구/공동체 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식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담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동책임과 참여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봉사이며, 모든 구성원은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모든 세례받은 이들은 교회의 사명 - 즉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 - 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 우리 교구/공동체, 나아가 사회에서 용기있고 책임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 교구/공동체의 회원들은 복음의 선포라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부름받고 어떠한 권능이 주어지는가?
-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고 참여하는데 있어 어떠한 방해요소들이 있는가?
- 우리 교구/공동체가 사명을 위한 팀워크와 공동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기도와 성체의 거행

'함께 걷기'는, 공동체가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에만 가능하다.

- 기도와 전례 거행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교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의 삶과 사명에 영감을 주고 이끌어 주는가?
-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 미사, 성시간, 성서 공부 모임 등)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 교구/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어떠한 영감을 주는가?
- 성체성사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성체성사란 나의 삶과 행동에 어떠한 영감을 주는가?
- 모든 신자들이 기도, 예전과 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마무리 질문 - 성령님을 경청하기

각 소그룹별로 5에서 10 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오소서 성령님” 의 기도나 즉흥적인 기도로 성령의 강림을 기원하시고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참가자별로 돌아가시면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거나, 기도를 올리신 뒤 나의 마음에 남은 통찰을 하나씩 말씀하시겠습니다.**

추가 질문 (생략 가능) – 아래 추가 질문들은 위에 제시된 내용과 통합해 사용하거나, 교구 외 교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관해

-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은?
- 하나님과의 관계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은?
-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교회”나 “신자 됨” 에 대한 언급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경험은?

다른 이들과의 대화와 관계

- 교회가 대화를 장려하는 방법들과, 교회가 타인들과 함께 대화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교회가 다른 기독교인과 함께 걷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시노드성과 관련된 기타 주제들

- “권능”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경청”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식별”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 교회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행동이 어떻게 취해지는 지에 관해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 시노드성은 변화와, 양성과 지속적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요구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 시노드 예비문서와 편람은 추가 목상과 토론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목구/공동체 종합 보고서 작성용 지침

경청회를 통해 대교구 내에서 시노드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목구와 기타 공동체/단체 (예: 대학교 사목부, 카톨릭 학교, 사도직/운동, 하나의 사목구에 소속되지 않은 기타 단체 등)는 각 주체 (사목구/단체)별로 **1부**의 종합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목구/단체에서 다회의 경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하나의 종합보고서만을 제출해주시기 발바니다.
- 사목구 보고서는 담당 신부님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기타 공동체/단체 제출 보고서는 해당 지도자 (담당 사제, 학교장, 운동/사도직의 지역 지도자/관리자 등)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위 보고서는 대교구 보고서의 작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노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경청과, 시노달리타스를 사는 것의 경험입니다.

각 종합 보고서는 아래 형식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http://archatl.com/synod) (archatl.com/synod)를 통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보고서 제출이 안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Jenny Miles (jmiles@archatl.com) 온라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인쇄본을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스캔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신인: Jenny Miles)

1 부: 기본 정보

- 1) 사목구, 카톨릭 학교, 대학교 사목부 내지는 공동체/단체명
- 2) 사목구, 카톨릭 학교, 대학교 사목부 내지는 공동체/단체의 주소
- 3) 신부/지도자의 성명
- 4)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부: 귀 사목구/공동체 내 시노드 과정의 평가

- 1) 귀 공동체는 어떠한 자문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a. 1 안: 1 일 기도중심 경청회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 b. 2 안: 3 주 기도중심 경청회 (대면, 비대면, 대면+비대면)
 - c. 온라인 설문
 - d. 기타 모임
 - e. 전화 통화
 - f.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자문에는 누가 참가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a. 사목구/공동체 구성원
 - b. 사목구/공동체 지도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
 - c. 사목구 평의회 (사목 또는 재무 평의회)
 - d. 냉담자
 - e. 기타 기독교인
 - f. 기타 종교인
 - g. 무교
 - h. 기타

- 3) 자문 과정 중 좋았던 점은? 최고의 순간은?

- 4) 자문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교훈점이 있다면?

- 5) 자문 과정의 결과서 맺어진 열매 중 귀 공동체에 적용하거나 시행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부: 대교구에 대한 시노드 피드백의 식별

1) **시사점:** 지역 교회 단위 시노드 경험에서 얻어진 주요 시사점 4-5 가지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열매들을 식별하는데 있어 성령님의 안내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식별 과정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공통적인 추세나 수렴점 외에도, 특별히 심금을 울리거나, 새로운 관점을 시사하거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항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우리 중 목소리가 작거나 잘 들리지 않는 이들의 음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통찰이 소수자들의 음성 속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 경청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경험 외에도 어려웠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모임에서의 실제 경험을 상기하며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의 태도는 어떠하였으며, 함께 기도하고 경청하고 식별함에 있어 즐거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사점 1: 근본 질문: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개별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

또는, 대안 주제:

시사점 2: 경청과 식별

또는, 대안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사목구/단체용 툴키트

시사점 3: 공동책임과 참여

또는, 대안 주제:

시사점 4: 기도와 성체의 거행

또는, 대안 주제:

시사점 5: 성령님을 경청하기 (기타 시사점이나 공유하고자 하는 경험), 또는 대안 주제:

2) 최종 질문: 작성자 (신부님/지도자와 그 팀)께서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애틀란타 대교구 내 귀 지역교회가 시노달리타스적으로 성장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시노드를 위한 기도: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교회 집회의 통치 또는 식별(따라서 시노드)을 위한 성령께 기원하는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오니이다.

아멘.



주교시노드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모든 회기는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뜻의 라틴어 원문 *Adsumus Sancte Spiritus* 로 시작하는 기도로 개회되었다.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공의회, 시노드, 교회의 다른 회의들에서 이 기도를 바쳤고, 이는 세비아의 이시도로 성인(560 년경-636 년 4 월 4 일)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시노드 과정에 착수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은 공동체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021 년에서 2023 년에 걸친 시노드 여정 중에는 아래의 간소화된 기도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Adsumus Sancte Spiritus* 기도문의 원문은 시노드 홈페이지를 참조.